

어느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과 책읽기

책으로 쓰는 자서전 — 4

김병익 | 문학평론가

“헤세의 <크눌프>는 실연당한 청년이 고향을 버리고 세상을 방랑하다 눈썹인 고향 근처의 산 속에 이르러 ‘제가 왜 이런 가혹한 벌을 받아야 합니까’라며 ‘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끝에 처연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다. 눈을 좋아하며 하나님과의 ‘독백’을 해오던 내게 그 장면과 대화는 깊은 울림을 줬다. 대학시절에 본 헤세의 <데미안>과 <싯달타> 그리고 <유리알 유희>에 더 격조높은 감명을 받았지만 내게 오래도록 남아 있는 헤세는 바로 눈 속에서 절망과 원망을 고백하던 크눌프의 그 마지막 모습이었다.”

고등학생이 된 후 3년 동안 내가 가장 몰두한 것은 공부나 책읽기나 혹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 일이었다. 입학하고 나서 바로 옆자리 친구가 장로 아들이었는데, 그가 어느날 자기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유혹했다. 기독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나는 호기심으로 따라갔다가 예배보는 신도들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며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그 때문에 몇 차례 더 교회에 나갔다. 내가 교회를 기웃거린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친구가 자기 교회로 나를 끌었고 캔을 펴고 이어 지분을 만든 퀸셋 건물이어서 ‘깡통교회’라고 불린 그 교회에 결국 나는 나의 아름다운 청소년 시절을 몽땅 바치게 됐다.

‘몽땅 바쳤다’라고 말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 열심스러워지면서 주일은 새벽 기도, 오전의 주일학교 반사, 그리고 본예배, 오후에는 학생회 등의 회의나 봉사, 그리고 저녁 예배 등등으로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냈고 토요일의 학생예배, 수요일의 수요일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했고 새벽기도도 자주 나갔으며 심방과 모임 등으로 일주일 가운데 닷새는 예배와 교회 일에 참여했다. 교회에서 보낸 이런 나날은 내가 대학 입학시험을 보러 상경하기 전 주까지 계속됐다. 그 지나친 교회생활이 내게 많은 피로

를 줬을 것이다. 중학생 때는 1년에 10여센티 자라던 키가 고등학교 3년 동안에는 3센티밖에 늘지 않았다.

낭만적인 교회 생활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의 기독교는 정통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소년시절의 낭만적인 정서에 더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성경>을 통독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설교도 한 적이 있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보다는 그 교회로 오가는 길과 걸음이었다.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집에서 30분쯤 걸리는 교회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이 더러웠기 때문에 노을빛이 더 아름답게 잠겨 있는 대전천 냇물과 석양을 무연히 바라보고, 혹은 돌아오는 길의 늦은 밤 플라타너스 나뭇잎에서 풍기는 은근한 향기를 맡으며 하늘의 별들을 때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때로는 외로운 느낌으로 걷는 그 산책에서 나는 경건한 신성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른 자리에서도 회고했지만 밤새 내린 눈은 새벽의 거리와 건물들 위로 더없이 순결한 세상을 만들고 그 위로 몇 개의 별이 아직 남아

있는, 동트는 여명의 한없이 신선한 하늘에서 내가 무한 자유를 느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사치일까. 그때 나는 이 이상 아름답고 신성한 장면을 앞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예감했는데, 그 후 어른이 돼 나이 들며 좋은 경치, 아름다운 형상들을 많이 봐왔지만, 그만큼 순결하고 깊고 아름다운 풍경은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대학입시 공부를 핑계로 고3의 처음 몇 달 동안 나는 주일학교 반사노릇을 그만뒀다. 그 대신 나는 주일이면 일찍 집에서 나와 내가 다니는 교회를 벗어나는 한갓진 언덕에 올라 거기서 따뜻한 봄 햇볕을 쬐며 하늘과 풀향기와 신선한 대기에 취하며 혼자서 한 시간 정도를 보냈다. 그 시간은 물론 기도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그리고 자유롭게 나의 사념을 풀어놓아 멋대로 흐르게 두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봤을까. 아마 신과 신앙에도 사유는 미쳤을 것이고 세계와 삶과 미래를, 그 안에 얽힌 운명이며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나는 문자 대신 자연에서 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실재를 읽으려 했던 듯하다. 나의 이런 산책이 루소풍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 이를 정도는 아니겠지만 돌이켜볼 때 나의 기독교 신앙이 범신론적이고 낭만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소년시절의 이 산책이 그 후 교회도 버리고 때 잔뜩 낀 어른으로 되면서도 내 안의 깊은 샘으로 남아 때때로 내 속에서 맑은 물로 솟아나는 데서 드는 짐작일 것이다.

헤세와 카뮈, 그리고 <사상계>와 <현대문학>

이랬기 때문에 나의 고등학생 시절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소설이 헤르만 헤세의 <크눌프>와 카뮈의 <이방인>이었음도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독일이 학습시간에 자주 읽히던 <청춘은 아름다워라>와 함께 수록된 <크눌프>(원제는 이랬지만 번역 제목은 달랐을 것이다)는 실연당한 청년이 고향을 버리고 세상을 방랑하다 눈썹인 고향 근

처의 산 속에 이르러 “제가 왜 이런 가혹한 벌을 받아야 합니까”라며 ‘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끝에 처연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다. 눈을 좋아하며 하나님과의 ‘독백’을 해오던 내게 그 장면과 대화는 깊은 울림을 줬다. 대학시절에 본 헤세의 《데미안》과 《싯달타》 그리고 《유리알 유희》에 더 격조높은 감명을 받았지만 내게 오래도록 남아 있는 헤세는 바로 눈 속에서 절망과 원망을 고백하던 크눌프의 그 마지막 모습이었다.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던 나는 신도들의 기도를 들으며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결국 나는 교회에 나의 아름다운 청소년 시절을 몽땅 바치게 됐다. 그랬기 때문일까.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소설은 헤르만 헤세의 《크눌프》와 카뮈의 《이방인》이다. 사진은 필자가 대전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답사를 읽던 모습.

카뮈를 모를 때 그의 《이방인》에서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역시 피르소가 감옥에서 신을 부정하며 나는 행복하다고 외치던 새벽의 그 각성 장면이었다. 그가 햇빛 때문에 아랍인을 사살했다는 우연성의 문제는 후에 실존주의라는 것을 익히고 나서 알게 된 주제였고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그의 운명애의 결연한 저항에 나는 전율했던 것 같다. 내 고등학교 진학을 축하하며 서울의 형이 선물한 《이방인》은 이휘영 교수의 명역으로 유명한 것인데, 내게 남은 책 중에 가장 묵은 이 소설을 다시 들춰보니 한 대목에 연필로 줄을 그어놓았다. 그 대목을 다시 읽어 봤다: “나는 보기에는 민주먹 같을지 모르나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은 너보다 더 강하다. 나의 인생과 닮아 이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나에게는 있어. 그렇다,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진리를, 그것이 나를 분둑고 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굳게 분둑고 있다”(청수사 간, 4287(1954)년, 189쪽).

대학에 들어가 읽어본 작가들 중 도스토예프스키 다음으로 나는 카뮈를, 좋아했다기보다 존경했고 《페스트》를 그의 대표작으로, 《전락》을 그의 가장 인간적인 작품으로 치고 있음에도 《이방인》의 이 장면은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불어 공부를 한다고 대학 2학년 때 원서를 놓고 대조라기보다는 이 번역판을 새로 읽으며(이 대조에서 이휘영 선생이 소설의 한 문장 번역을 빠트린 것을 발견하고 호뭇해 했다) 이 대목에 다시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젊은 시절 나는 교회를 버렸던 것이고 그랬음에도 신과 신앙의 문제로 번뇌하고 절망하며 여러 철을 보냈던 것인데, 그 고통의 시절 피르소의 이 부정애의 확신과 절규가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몇 해 후의 일이고 나의 청소년 시절은 여전히 평온하고 아름다웠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생이 되고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갑자기 조용하고 점잖아졌으며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가는 일 외에는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책을 보는 독서인이었다. 고등학생으로는 치기 어린 ‘짓’ (‘땃’ 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나는 이 성인 교양지와 문

학지를 보면서 아는 책은 못했기 때문이었다)이었겠지만 그 쉬는 시간에 나는 《사상계》며 《현대문학》을 봤던 것이다. 중학생 시절에 보던 《학원》을 계속 구독했지만 반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두 잡지를 외판했고 그래서 내가 봐준 것인데, 지금 돌이켜봐도 내게는 좀 높은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알든 모르는 나는 봤고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저런 교양 상식이 붙어났을 것이다. 나는 실존주의며 니체나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같은 사상가들 혹은 황순원, 손창섭, 장용학 같은 작가들을 익히고 있었다. 훗날 나는 1953년에 창간된 《사상계》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4·19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훨씬 뒤로 미뤄졌을 것이란 생각을 했고, 《현대문학》이 간행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우리 문학이 상당히 뒤쳐진 꼴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하곤 한다. 이 두 잡지는 전쟁과 혼란, 피폐와 빈곤의 50년대를 버티게 만든 지식사회의 두 기둥이었을 것이다.

그 시절 누렸던 가장 아름답고 풍요한 행복

고1 때 바라크를 헐고 가게 안채에 주택을 새로 장만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오래 바라온 내 방을 가지게 되면서 교과서 말고 2백권쯤 끼워 놓을 수 있는 작은 책장도 마련했다. 거기에 내가 보던 잡지며 사 읽은 단행본을 채워놓았는데, 그 중 김유정의 두툼한 단편집 《등백꽃》과 김동리의 평론집 《문학과 인간》이 꽃혀있던 기억이 난다. 김유정은 단편집의 맛을 알게 해줬고, 김동리의 한 글에서는 소월의 〈산유화〉에서의 ‘저만치’란 구절에 대한 해명을 읽고 교과서에 나온 이 시에 대한 국어선생의 무책임한 해석에 아는 척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의 고등학생이면 으레 가지고 있던 톨스토이의 《인생독본》이며 김용호 시집 《날개》, 한하운의 《보리피리》, 신석정의 《슬픈 목가》,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 문학인이 쓴 사변적인 에세이 등 나의 청소년 시절의 ‘장서’ 들은 겨우 찾아낸 《이방인》 외에는 지금 어떻게 해서인지 모두 흩어져 없어져버렸다. 그리고 그 책들과 함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가장 아름답고 풍요한 행복은 앞으로 내게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때의 내가 가졌던 확신대로, 나의 19세와 함께 나의 ‘벨 에포크(아름다운 시절)’는 사라지고 만 것이다.●